



## 자유 병합과 표찰 알고리즘에 기반한 영어 동사 **help**의 부정사 보문에 대한 구조적 분석\*

Dayoon Bae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rch 27, 2026

Revised: April 19, 2026

Accepted: April 21, 2026

Baek, Dayoon  
PhD Graduat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46241, Republic of Korea  
Tel: +82-51-510-1510  
E-mail: 100dayoon@naver.com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5S1A5B5A17016603).

### ABSTRACT

**Baek, Dayoon. 2026. A structural analysis of infinitival complements of the English verb *help* based on Free Merge and the Labeling Algorithm.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6, 630-650.**

This paper examines the syntactic structure of bare infinitival and *to*-infinitival complements in *help*-construc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Free Merge and the Labeling Algorithm. While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account for the contrast in terms of semantic or pragmatic factors, or within ECM/control-based analys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stinction is fundamentally structural. Specifically, bare infinitival complements are derived via Pair-Merge between  $v^*$  and a defective T ( $u_{Tdef}$ ), forming a complex head and yielding a reduced clause ( $v^*P$ ) without an independent TP. In contrast, *to*-infinitival complements are derived via Set-Merge, in which T is independently merged and projects a full TP. This structural difference accounts for a range of asymmetries, including passivization, temporal interpretation, aspectual marking, and the distribution of negation, adverbs, and adjunc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complement types follows from differences in Merge operations rather than from selectional or interpretive factors. This approach provides a unified account of infinitival variation and can be extended to other non-finite constructions.

### KEYWORDS

*help*-construction, bare infinitival complement, *to*-infinitival complement, Free Merge, the Labeling Algorithm, Pair-Merge, Set-Merge

## 1. 서론

영어 우언적 사역동사(periphrastic causative)에는 make, let, have, allow, force, get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부정사절 보문(infinitival clausal complement)을 취한다는 공통된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사들은 보문의 형태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allow, force, get과 같이 to-부정사 보문(to-infinitival complement)을 취하는 부류이며, 다른 하나는 make, let, have와 같이 원형부정사 보문(bare infinitival complement)을 취하는 부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로는 설명되지 않는 동사도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help이다(Hah 2013). 잘 알려져 있듯이 help는 다음 예문(1)과 같이 원형부정사 보문과 to-부정사 보문을 모두 허용한다.

- (1) a. She helped me finish the report.  
b. She helped me to finish the report.

이와 같이 help는 동일한 통사적 환경에서 서로 다른 부정사 보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 사역 구문 체계 내에서 특이한 분포를 보인다. 특히 두 구조는 단순한 형태적 변이에 그치지 않고, 수동화 가능성, 시제 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식 요소의 분포와 해석 범위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to-부정사 보문은 수동화가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반면,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이러한 파생이 제한되며, 두 구조는 사건의 시간적 해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두 보문이 동일한 통사 구조의 변이로 환원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나는 두 보문 유형의 분포와 사용 양상을 기술하는 연구이며(Biber et al. 1999, Jespersen 1965, Nation 2013, Palmer 1987), 다른 하나는 두 부정사 보문 간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려는 연구이다(Close 1975, Dixon 2005, Duffley 1992, Huddleston and Pullum 2002, Mair 1995, Quirk et al. 1985). 전자는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 빈도와 분포적 경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이러한 분포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구조 사이의 의미적 대비를 가정한다. 예컨대 일부 연구에서는 원형부정사 보문이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나타내는 반면, to-부정사 보문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거나 지향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두 보문 유형 간의 분포적 경향이나 의미 차이를 기술하는 데에는 일정한 설명력을 가지지만, 왜 동일한 동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보문 구조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통사적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Hah(2013)와 같은 연구는 이러한 분포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구문과의 유추를 통해 설명하려 하지만, 이 역시 두 구조가 통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부정사 선택 문제는 의미나 사용 기반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두 보문 구조가 어떠한 통사적 조건과 연산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부정사 보문 간의 의미적 차이는 독립적인 의미 범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통사 구조에서 파생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기반하여, help-구문에서의 두 부정사 보문이 단일 구조의 변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병합 방식으로 도출되는 상이한 통사 구조임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형부정사 보문은 결합적 T가 v\*와 외부 쌍병합(External Pair-Merge)으로 결합한 축소된 구조로 분석되는 반면, to-부정사 보문은 T가 독립적인 기능핵으로 외부 조병합(External Set-Merge)되어 TP를 형성하는 구조로 분석된다. 이러한 병합 방식의 차이는 절 구조의 크기, 국면 형성, 자질 상속 및 표찰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그 결과 보문 주어의 이동 가능성, 수동화, 시제 해석, 상 표현, 수식 요소의 분포와 해석 범위 등에서 차이를 유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부정사 보문 T의 통사적 속성과 자유 병합(Free Merge) 및 표찰 알고리즘(Labeling Algorithm)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두 유형의 부정사 보문 구조를 각각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다양한 통사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의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이론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2. 선행연구

### 2.1 help의 부정사 보문

기존 연구에서는 help-구문에서의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의 교체를 주로 의미적·화용적 관점에서 설명해 왔다. 특히 Haiman(1983)의 도상성(iconicity) 원리에 따르면, 사건 간의 개념적 거리와 언어적 표현의 형식적 거리는 대응 관계를 이루며, 원형부정사는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사건 결합을, to-부정사는 상대적으로 덜 결합된 사건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은 Rohdenburg(2003), Rudanko(2003)와 같이 영어 보문 선택 전반에서 구조적 복잡성과 형태 반복 회피(horror aequi)의 역할을 논의한 연구들과 Wang et al.(2024)와 같이 help-구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장되어, help-구문의 선택이 거리와 구조적 복잡성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Mair(1995), McEnergy와 Xiao(2005)의 코퍼스 연구는 이 교체가 점진적이며 역사적·지역적 변이를 보이는 현상임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미적·화용적 설명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사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두 부정사 보문 간의 차이는 서로 다른 통사 구조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사건 결합의 정도 및 해석상의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은 도상적 거리(iconic distance)에 대한 직관을 통사적으로 형식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 2.1.1 의미적 특징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help-구문에서 널리 논의되어 온 쟁점 중 하나는 원형부정사 보문과 to-부정사 보문 사이의 의미적 차이이다. 두 부정사 형태는 이미 고대 영어 시기부터 존재해 왔지만(Sohng and Moon 2007), help-구문에서 보문으로 사용되는 원형부정사는 비교적 후대인 16세기경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후 두 형태가 공존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서로 다른 의미적 기능을 분담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형태적 차이가 의미적 차이로 대응될 수 있다는 Bolinger(1977)와 Haiman(1983)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Dixon(2005), Duffley(1992), Huddleston과 Pullum(2002) 등은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두 부정사 보문 사이에 직접적 도움(direct help)과 간접적 도움(indirect help)이라는 의미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제안한다. 다음 예문 (2)를 살펴보자.

- (2) a. Michael helped Sarah eat the sandwich.  
b. Michael helped Sarah to eat the sandwich.

이들에 따르면, (2a)의 원형부정사 보문은 Michael이 Sarah의 먹는 행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반면, (2b)의 to-부정사 보문은 보다 간접적인 도움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Sarah가 음식을 먹도록 숟가락을 입 쪽으로 안내해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Dixon(2005)은 이러한 차이를 사역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즉 make, have, let과 같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원형부정사를 취하는 반면, cause와 같이 간접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to-부정사를 요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구분은 일관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Dixon(2005), Huddleston과 Pullum(2002), McEnery와 Xiao(2005) 등은 간접적인 행위가 포함된 상황에서도 원형부정사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음 예문(3)을 살펴보자.

- (3) My mum used to help cook the meals for the children.

(McEnery and Xiao 2005, pp. 171-172)

(3)에서 행위 주체인 mum은 실제로 요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요리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준비를 돕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즉, 맥락에 따라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직접적 행위와 간접적 행위의 구별이 반드시 부정사 형태의 선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사한 문제는 Huddleston과 Pullum(2002)이 제시한 다음 예문(4)에서도 확인된다. (4b)는 (4a)보다 더 간접적인 도움 상황을 나타내지만, 많은 화자들이 두 문장 모두에서 원형부정사를 허용한다. 이는 의미적 직접성이 부정사 형태 선택과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 (4) a. He helped me (to) finish on time by doing the bibliography for me.  
b. He helped me (to) finish on time by taking the children away for the week-end.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help의 두 부정사 보문 사이에 일정한 의미적 차이가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차이는 맥락에 따라 쉽게 중화되며 항상 일관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직접적 도움과 간접적 도움이라는 구분은 일부 해석 경향을 포착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두 부정사 형태의 분포와 해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원리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Hah(2013)에서도 지적된다. 그는 두 부정사 유형 간 선택이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의미적 대비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의미적 설명만으로는 help-구문의 분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이 두 구조 사이에 의미적 차이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의미 차이가 독립적인 의미 규칙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 요인 즉, 통사 구조의 차이에서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help-구문에서의 부정사 선택은 단순한 의미적 대립이 아니라, 두 보문 구조가 어떠한

통사적 조건과 연산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문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부정사 보문 사이에서 관찰되는 해석 차이는 서로 다른 통사 구조에서 비롯된 파생적 효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실현 양상은 의미적·화용적 맥락에 따라 일정한 변이를 보일 수 있다.

### 2.1.2 문법적 특징

help-구문은 의미뿐 아니라 통사적 분포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어 동사는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 중 하나의 형태만을 보문으로 취한다. 예를 들어 *make*, *let*, *have*와 같은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를, *want*, *try*, *decide*와 같은 동사는 to-부정사를 요구한다. 이와 달리 *help*는 두 형태를 모두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예외적인 동사로 간주된다.

help-구문의 구조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정사 보문을 취하는 인상 구문과 통제 구문과의 비교가 유용하다. 특히 관용구 조각(idiom chunk)은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Radford 2009). 관용구는 내부 구성 요소들이 국부적인 통사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관용적 의미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5)를 살펴보자.

- (5) a. Michael helped the genie (to) be out of the bottle. (관용적 의미)  
 b. Michael wanted the genie to be out of the bottle. (관용적 의미)  
 c. Michael persuaded the genie to be out of the bottle. (문자적 의미)

관용구 *the genie is out of the bottle*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관용적 의미를 갖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니가 병 밖에 있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된다. (5b)의 인상 구문에서는 관용구의 주어와 술어가 보문 내부에서 국부적인 관계를 유지하므로, 관용적 해석이 유지된다. 반면 (5c)의 통제 구문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깨지므로 문자적 해석만 가능하다. (5a)의 help-구문에서는 관용적 의미가 유지되는데, 이는 *help*의 보문 역시 주어와 술어가 동일한 절 내부에서 국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부성은 결속 현상(binding)에서도 확인된다. 결속 이론에 따르면 재귀사와 같은 조응소(anaphor)는 동일 절 내부의 선행사에 의해 결속되어야 한다. 다음 예문(6)을 살펴보자.

- (6) a. Sarah helped [her children (to) look at themselves/\*herself in the mirror].  
 b. Sarah wanted [her children to look at themselves/\*herself in the mirror].

(6)에서 재귀사 *themselves*는 보문 주어 *her children*과 동일 절에서 결속되므로 허용된다. 반면 *herself*는 상위 절 주어 *Sarah*와 동일 절에 있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help-구문에서도 보문 주어가 보문 내부에서 해석됨을 보여주며, 구조적으로 인상 구문과 유사한 성격을 시사한다.

한편 help-구문의 부정사 보문은 범주적 지위에서도 흥미로운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to-부정사 보문은 CP로 확장될 수 있으며, CP 보문은 등위접속(coordination)이나 유사분열문(pseudocleft)에서 일정한 분포적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CP는 다른 CP와 병렬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유사분열문의 초점 위치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help-구문에서는 이러한 분포가 제한된다. 다음 예문(7)-(10)을 살펴보자. (7)의 인상 구문에서 *want*의

보문은 *for*가 도입하는 CP와 등위 접속이 가능하며, 이는 해당 보문이 CP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7) I want [Mary to come to Japan] and [for him to see my parents].

(Radford 2009, p. 117)

그러나 *help*-구문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등위접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8)의 낮은 수용성은 *help*의 부정사 보문이 CP와 같은 범주로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help*의 보문은 CP 수준으로 확장되지 않은 보다 축소된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9)의 통제 구문에서는 *arrange*가 CP 보문을 허용하기 때문에 등위접속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 (8) \*Michael helped [Sarah (to) eat the soup] and [for her (to) wash the dishes].

- (9) I will arrange [to see a specialist] and [for my wife to see one at the same time].

(Radford 2009, p. 119)

이러한 차이는 유사분열문에서도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유사분열문의 초점 위치에는 CP와 같은 완전한 절 단위가 요구된다. (10b)-(10c)에서 보듯이 *want*와 *arrange*의 보문은 이 위치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10a)에서 *help*의 보문은 현저히 낮은 수용성을 보인다. 이는 *help*의 부정사 보문이 CP 계층을 포함하지 않는 구조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10) a. \*What Mike helped was [Diana (to) eat the soup].

- b. What I want is [\*(for) her to see my parents].

- c. What I'll arrange is [(for you) to see a specialist].

수동화 역시 보문 구조의 성격을 진단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음 예문(11)-(12)를 살펴보자.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수동화가 현저히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to*-부정사 보문에서는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이는 두 보문이 서로 다른 통사적 조건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11) a. Michael helped Sarah eat the sandwich. (=2a))

- b. \*Sarah was helped eat the sandwich.

- (12) a. Michael helped Sarah to eat the sandwich. (=2b))

- b. Sarah was helped to eat the sandwich.

앞서 살펴본 관용구 조각 검증과 결속 현상은 두 보문 모두에서 보문 주어와 술어가 동일한 절 내부에서 국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동화와 같은 통사적 현상에서는 두 구조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두 보문이 단순히 동일한 구조의 변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구조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CP 계층의 유무로 설명되기보다는, 보문이 결합하는 방식과 기능 범주의 통사적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부정사 보문에 나타나는 T의 특성을 중심으로, 두 유형의 보문 간 구조적 차이를 시사하는 근거를 살펴본다.

## 2.2 부정사 보문 T의 통사적 속성

앞 절에서는 help-구문이 원형부정사 보문과 to-부정사 보문을 모두 허용하지만, 수동화 현상에서 서로 다른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형태적 변이가 아니라, 보문 내부의 기능 범주, 특히 T의 통사적 속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본 절에서는 원형부정사 보문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절 구조를, to-부정사 보문은 보다 완전한 절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인다. 이때 to는 단순한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T의 외현적 실현으로 간주된다.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원형부정사절과 to-부정사절은 분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 예문(13)은 Aarts(2024, pp. 74-79)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원형부정사절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실현됨을 보여준다.

- (13) a. We saw [the leaves fall].  
 b. \*[(The leaves) fall] would be a good idea.  
 c. Ethan wants to buy the car [sooner than rent].  
 d. [Rather than watch a movie], Olivia skipped it.

(13a)에서 원형부정사절은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며, 절 내부에 주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13b)와 같이 절 전체가 주어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원형부정사절이 독립적인 절 단위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13c)-(13d)에서 보듯 원형부정사절은 sooner than이나 rather than과 같은 특정 표현과 결합하여 부가어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 내부 주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된다. 이러한 분포는 원형부정사절이 제한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축소된 구조임을 시사한다.

반면 to-부정사절은 훨씬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다음 예문(14) 역시 Aarts(2024, pp. 74-79)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를 보여준다.

- (14) a. [(For Mina) to move to Canada] would be a smart choice.  
 b. [What to include in the report] seems uncertain.  
 c. Daniel considers [Emma to be a reliable partner].  
 d. She suggested [to expand the marketing strategy].  
 e. We need some snacks [(for us) to get through the night].

to-부정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부가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며, 필요할 경우 내부 주어도 명시할 수 있다. 이는 to-부정사절이 보다 완전한 절 구조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비는 두 부정사 보문이 서로 다른 속성의 T를 포함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원형부정사 보문을 결합적 T를 포함한 TP 구조로 분석하는 Hwang(2002, 2016)과 백다운(2023)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결합적 T가 존재하며, to-부정사 보문에서는 to가 T의 외현적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은 백다운과

장경철(2025)에서도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적용된 바 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이 구조에 한정되는 반면, 본 논문은 이를 help-구문으로 확장하고 to-부정사 보문까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또한 Hwang(2002)은 원형부정사 보문에 대해 CP 계층이 없는 결합적 구조로 보고, 보문 주어의 격 점검을 ECM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help-구문은 통제 구문보다는 인상 구문이나 ECM 구문과 유사하며, 두 부정사 보문은 모두 CP 계층 없이 TP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제 구문은 CP를 포함하는 반면, 인상 구문이나 ECM 구문은 CP 없이 TP로 분석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help-구문의 두 보문은 모두 TP이지만, 내부 T의 속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앞 절에서 확인한 통사적 차이와도 연결된다. 원형부정사 보문은 제한된 분포를 보이며 수동화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 to-부정사 보문은 보다 자유로운 분포를 가지며 수동화가 가능하다. 이는 두 구조가 서로 다른 절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문 내부의 기능 범주뿐 아니라, 통사 구조가 형성되는 방식 자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통사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help-구문의 보문을 ECM 구조, 통제 구조, 소절(small clause) 구조, 그리고 재구조화(restructuring) 구조 등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보문 주어의 위치, 수동화 비대칭성, 그리고 부정사 유형 간의 분포 차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특히 이러한 분석들은 보문의 구조적 크기나 결합 정도를 기술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파생 과정에서의 표찰 문제나 자질 상호작용과 같은 보다 미시적인 통사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통사 구조가 병합 연산에 의해 형성되며(Chomsky 1995, 2004), 이후 표찰 알고리즘이 구조의 범주적 정체성을 결정한다(Chomsky 2013). 또한 자유 병합 개념은 병합이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Chomsky 2015). 이러한 이론적 틀은 부정사 보문 내부의 기능 범주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두 유형의 부정사 보문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자유 병합과 표찰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검토한다.

### 2.3 자유 병합과 표찰 알고리즘

앞 절에서는 help-구문이 선택하는 원형부정사 보문과 to-부정사 보문이 상이한 통사적 분포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가 보문 내부의 기능 범주, 특히 T의 속성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찰은 두 유형의 부정사 보문의 차이가 단순한 형태적 차이가 아니라, 통사 구조 형성 방식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절에서는 병합과 표찰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다.

강력 최소주의 접근에서 병합은 통사 구조를 생성하는 기본 연산으로, 서로 다른 통사 개체를 결합하여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Chomsky 1995, 2004). 이후 Chomsky(2013)는 병합된 구조의 범주를 결정하는 원리로 표찰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XP-YP 구조에서는 표찰이 결정되어야 해석이 가능하며, 이때 자질 공유나 이동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Chomsky(2015)는 병합 연산이 비교적 자유롭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 병합 개념을 제시하였다.



상위 구조 R은 v\*로부터  $\phi$ -자질을 상속받지만, 탐색 영역(search domain)에 있는 C는  $\phi$ -자질을 지니지 않으므로 R과의 자질 일치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외부 쌍병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즉 v\*가 R과 결합하여 복합핵 <R, v\*>을 형성하면, 이 과정에서 v\*가 지닌  $\phi$ -자질은 비활성화된다. 이후 이 복합핵이 하위 구조  $\beta$ 와 외부 조병합되면 자질 일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 (17)과 같다.

(17) [EA [ $\alpha$  <R, v\*> [ $\beta$  C ... ]]]

Mizuguchi(2016)는 v\*P 국면과 CP 국면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하고, 이를 근거로 외부 쌍병합의 적용 범위를 CP 단계까지 확장한다. 이는 다음 예문(18)의 that-절 주어 구조로 검토된다.

- (18) a. That the team won the match was celebrated by the fans.  
b. That she accepted the offer surprised her colleagues.

이 구조에서 that-절은 문장의 주어로 기능하지만  $\phi$ -자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절 C로부터 상속된 T의  $\phi$ -자질과 일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자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표찰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나아가 인터페이스에서의 해석 또한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와 C는 외부 쌍병합을 통해 복합핵 <T, C>를 형성하고, 이 단위가 v\*P에 해당하는 통사 개체와 병합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C의  $\phi$ -자질은 복합핵 <T, C>의 형성 과정에서 가시성(visibility)이 제한됨에 따라 통사적 연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며, Mizuguchi(2016)의 용어를 따라 비활성화(de-activation)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의 비가시성은 Chomsky(20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복합핵 형성 시 특정 자질의 가시성이 제한되는 데에서 기인한다. 즉, C의  $\phi$ -자질은 점검되거나 실현되지 않으며, 그 결과 상속이 차단되고 T 역시 자질 일치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 $\alpha$  <T, C> [ $\beta$  EA [v\* [ $\gamma$  R ... ]]]]

(Mizuguchi 2016, p. 110)

최근 연구에서도 이러한 확장된 병합 개념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Blümel(2024)은 독일어 자료를 바탕으로 T와 v\*의 외부 쌍병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능 범주 간 결합 방식이 통사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분석에서 T는 독립적인 시제 범주로 실현되기보다는 v\*와 결합된 상태에서 시제 정보를 구현하며, 이는 Chomsky(2021)의 구조적 상호작용 관점과도 조화를 이룬다.

Blümel(2024)의 분석은 독일어 자료에 기반하지만, 본 논문은 이를 help-구문의 부정사 보문에도 확장 적용하여, 두 유형의 부정사 보문이 서로 다른 병합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즉, 원형부정사 보문은 외부 쌍병합에, to-부정사 보문은 외부 조병합에 기반한다. 이러한 차이는 보문 주어의 통사적 지위, 수동화 가능성, 표찰 방식 등 다양한 통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유 병합과 표찰 알고리즘은 두 보문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이론적 도구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두 유형의 부정사 보문의 구체적인 구조를 제시한다.

### 3. 제안

#### 3.1 help의 부정사 보문 구조

##### 3.1.1 원형부정사 보문

본 절에서는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원형부정사 보문의 통사 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통사 구조가 자유 병합에 의해 형성되며, 병합은 외부 조병합과 외부 쌍병합의 두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따른다(Chomsky 2015, Epstein et al. 2015, Mizuguchi 2016). 이에 따라 help가 선택하는 두 유형의 부정사 보문이 서로 다른 병합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원형부정사 보문은 외부 쌍병합에 기반한 구조로 도출되며, 독립적인 CP 계층을 형성하지 않는 축소된 절로 분석된다. 보문 T는 시제를 자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결합적 핵  ${}_uT_{def}$ 로 가정되며, 시제 값은 상위 절과의 일치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예문(20)을 살펴보자.

(20) She helped me finish the report. (= (1a))

(20)에서 finish the report는 고유한 시제를 갖지 않으며, 상위 절과 결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즉, 도움을 주는 사건과 보고서를 끝내는 사건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의 도출은 다음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1) a. [ ${}_\alpha$  V, the report]
- b. [ ${}_\beta$  the report, [ ${}_\alpha$  V, ~~the report~~]]
- c. [ ${}_\gamma$  < $v^*$ [ ${}_{u\phi}$ ],  ${}_uT[{}_{u\phi}]$ >, [ ${}_\beta$  the report, [ ${}_\alpha$  V, ~~the report~~]]]
- d. [ ${}_\gamma$  < $v^*$ ,  ${}_uT[{}_{u\phi}]$ >, [ ${}_\beta$  the report, [ ${}_\alpha$  V[ ${}_{u\phi}$ ], ~~the report~~]]]
- e. [ ${}_\gamma$  <V, < $v^*$ ,  ${}_uT[{}_{u\phi}]$ >>, [ ${}_\beta$  the report, [ ${}_\alpha$  V, ~~the report~~]]]

(21a)-(21b)는 일반적인 VP 형성 단계이다. 이후 원형부정사 보문은 일반적인 TP 도출과 달리, (21c)에서처럼  $v^*$ 가 VP와 결합하기 이전에  ${}_uT_{def}$ 와 외부 쌍병합하여 복합핵을 형성한다. 이는 원형부정사 보문의 구조적 성격을 결정하는 단계이며, 이 과정은 아래 수형도(22)와 같다.

(22)



여기서  $T_{def}$ 는 비해석성  $\phi$ -자질과 시제 값이 결정되지 않은  ${}_uT$  자질을 포함하는 결합적 핵으로, 독립적인 TP를 투사하지 못한다. 즉,  $T_{def}$ 는 통사적으로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절 범주로 형성하지 않으며, 그 시제 값은 상위 절과의 자질 관계에 의존한다.

Chomsky(2021)에 따르면  $v^*$ 는 사건 구조와 의미역 할당을 담당하고, T는 시제 정보를 담당한다. 그러나 < $v^*$ , T>와 같이 두 핵이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된 구조에서는 이러한 기능 분리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 경우  $T_{def}$ 의 시제 자질은  $v^*$ 로 상속되고, 그 결과 시제 해석은  $v^*$ 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된다. 반면  $T_{def}$ 는 비활성화되며, 이로 인해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부정사 표지  $to$ 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형성된  $\langle v^*, T_{def} \rangle$ 는 VP와 외부 조병합한 뒤, 보문 주어가 병합된다. 다음 (23)의 과정을 살펴보자. (23a)에서  $\langle v^*, T_{def} \rangle$ 는  $\beta(VP)$ 와 외부 조병합하여  $\gamma$ 를 생성하고, (23b)에서는  $\gamma$ 가 보문 주어  $me$ 와 외부 조병합하여  $\delta$ 를 생성한다.

- (23) a. [ $\gamma \langle v^*, {}_u T_{[u\phi]} \rangle$ , [ $\beta$  the report, [ $\alpha V_{[u\phi]}$ , ~~the report~~]]]  
b. [ $\delta me$ , [ $\gamma \langle v^*, {}_u T_{[u\phi]} \rangle$ , [ $\beta$  the report, [ $\alpha V_{[u\phi]}$ , ~~the report~~]]]]

여기서 중요한 점은  $T_{def}$ 가 보문 주어보다 먼저 병합된다는 것이다. 즉, 주어가 도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langle v^*, T_{def} \rangle$  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이후 표찰과 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gamma$ 가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v^*P$  국면이 성립하고, 이 단계에서 자질 상속과 표찰이 이루어진다.  $\alpha$ 는 핵과 최대 투사가 병합된 구조이므로 VP로 표찰된다.  $\beta$ 는 V와 D의 자질 일치에 의해  $\langle \phi, \phi \rangle$ 로 표찰되며, 이 경우 추가 이동은 요구되지 않는다.  $\gamma$ 는  $v^*$ 를 핵으로 하는  $v^*P$ 로 표찰된다.

이후  $\langle v^*, T_{def} \rangle$ 는 내부 쌍병합을 통해 V와 결합하여 다음 (24)와 같은 구조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v^*$ 는 자신의 자질을 V에게 상속하고 비활성화되며, 그 결과 V가 국면 핵 역할을 한다. 다만  $v^*$ 가 비활성화되더라도 국면 경계 자체는 유지되므로, 해당 구조는 여전히  $v^*P$ 로 해석된다.

- (24)  $\langle V, \langle v^*, T_{def} \rangle \rangle$

이렇게 형성된 하위 절은 상위 절과 병합한다. 이 과정은 다음 (25)와 같이 전개된다. (25a)에서 보문 주어  $me$ 는 하위 구조와 결합하여  $\delta$ 를 형성하고, (25b)에서는 이 구조가 모문 동사  $help$ 와 결합하여  $\epsilon$ 를 형성한다. (25c)에서는  $\epsilon$ 가 다시 상위  $v^*$ 와 결합하여  $\eta$ 를 형성한다.

- (25) a. [ $\delta me$ , [ ${}_{VP} \dots$  ]]  
b. [ $\epsilon help$ , [ $\delta me$ , [ ${}_{VP} \dots$  ]]]  
c. [ $\eta v^*$ , [ $\epsilon help$ , [ $\delta me$ , [ ${}_{VP} \dots$  ]]]]]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v^*P$  국면이 형성되어 전이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T_{def}$ 의 자질이 아직 점검되지 않아 전이가 지연된다. 보문 T는 상위 절 T와의 일치를 통해 시제 값을 받아야 하므로, 이 시점에서 국면이 형성되면 상위 T와의 일치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문 T의 자질이 점검될 때까지 국면 형성과 전이는 유보된다. 그 결과 보문 T는 성분통어 관계를 유지한 채 상위 절 T와 일치하여 시제 값을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질 상속과 표찰도 다음 국면 형성 시점까지 지연된다.

이후 상위 절 구조는 다음 (26)과 같이 확장된다. (26a)에서 주어 I가 병합되고, (26b)에서 T가 도입된다. (26c)에서는 주어가 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이어서 (26d)-(26e)에서는 C가 병합되고, 그 자질이 T로 상속된다.

- (26) a. [ $\theta$  I, [ $\eta$  v\*, [ $\varepsilon$  help, [ $\delta$  me, [ $\nu$ P ... ]]]]]  
 b. [ $\kappa$  T, [ $\theta$  I, [ $\eta$  v\*, [ $\varepsilon$  help, [ $\delta$  me, [ $\nu$ P ... ]]]]]]]  
 c. [ $\lambda$  I, [ $\kappa$  T, [ $\theta$  I, [ $\eta$  v\*, [ $\varepsilon$  help, [ $\delta$  me, [ $\nu$ P ... ]]]]]]]]]  
 d. [ $\mu$  C<sub>[u $\phi$ ]</sub>, [ $\lambda$  I, [ $\kappa$  T, [ $\theta$  I, [ $\eta$  v\*, [ $\varepsilon$  help, [ $\delta$  me, [ $\nu$ P ... ]]]]]]]]]]]  
 e. [ $\mu$  C, [ $\lambda$  I, [ $\kappa$  T<sub>[u $\phi$ ]</sub>, [ $\theta$  I, [ $\eta$  v\*, [ $\varepsilon$  help, [ $\delta$  me, [ $\nu$ P ... ]]]]]]]]]]]

이 시점에서 CP 국면이 형성된다. 자질 상속을 받은 상위 T는 보문 T<sub>def</sub>와의 일치를 통해 보문 절의 시제 값을 결정하며, 그 결과 보문 절은 상위 절과 시제를 공유한다.

Chomsky(2013)에 따르면, 국면은 자질이 점검되어 해석 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때 형성된다. 따라서 보문 T<sub>def</sub>가 비해석성  $\phi$ -자질과  $\nu$ T 자질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전이가 유보되며, 상위 T와의 일치 through 자질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야 CP 국면이 완성된다. 국면 형성과 자질 상속이 완료되면, 표찰이 적용된다.  $\delta$ 는 XP-YP의 대칭 구조를 이루며, 보문 T는 비해석성  $\phi$ -자질을, 보문 주어는 해석성  $\phi$ -자질을 가진다. 최소 탐색에 의해 두 요소 간 자질 일치가 이루어져  $\delta$ 의 표찰은  $\langle\phi, \phi\rangle$ 로 결정된다. 이러한 대칭 구조에서 자질 일치가 성립하면 추가 이동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구조는 다음 (27)과 같은 수동화 제약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27b)의 수용성이 낮은 이유를 원형부정사 보문의 축소된 절 구조에서 찾는다.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하위 절의 T가 독립적인 TP를 투사하지 못하고 v\*와 외부 쌍병합된 결합적 T<sub>def</sub>로 실현된다. 그 결과 보문 절은 v\*P 수준의 축소된 절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 (27) a. Michael helped Sarah eat the sandwich. (=2a)  
 b. \*Sarah was helped eat the sandwich.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문 주어 Sarah가 보문 절 내부에서 이동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수동화 과정에서 Sarah가 상위 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27b)와 같은 수동문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3.1.2 to-부정사 보문

본 절에서는 help가 선택하는 to-부정사 보문의 통사 구조를 분석하고, 앞 절에서 논의한 원형부정사 보문과의 구조적 차이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두 부정사 보문이 단순한 표면적 변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병합 방식과 국면 형성 방식에 의해 도출되는 별개의 통사적 개체라고 주장한다.

원형부정사 보문은 외부 쌍병합을 통해 복합핵  $\langle v^*, T_{def} \rangle$ 을 형성하는 반면, to-부정사 보문은 외부 조병합을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절 구조를 이룬다. 특히 to-부정사 보문에서는 T가 독립적으로 병합되어 TP를 투사하므로, 보문 절은 구조적으로 완전한 절 단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예문(28)과 (29)을 통해 도출 과정을 살펴보자.

- (28) She helped me to finish the report. (=1b))

- (29) a. [ $\alpha$  V, the report]  
 b. [ $\beta$  the report, [ $\alpha$  V, ~~the report~~]]  
 c. [ $\gamma$  v\*<sub>[u $\phi$ ], [ $\beta$  the report, [ $\alpha$  V, ~~the report~~]]]  
 d. [ $\gamma$  v\*, [ $\beta$  the report, [ $\alpha$  V<sub>[u $\phi$ ], ~~the report~~]]]  
 e. [ $\gamma$  <V, v\*>, [ $\beta$  the report, [ $\alpha$  ~~V~~, ~~the report~~]]]</sub></sub>

(29a)에서는 보문 동사 finish와 목적어 the report가 외부 조병합하여 VP를 형성한다. (29b)에서는 목적어 DP가 내부 조병합을 통해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통사체  $\beta$ 를 형성한다. 이때 원래 위치는 복사체로 남아, 표찰에서 비가시적 요소로 처리된다. (29c)에서는 v\*가 VP와 외부 조병합하여  $\gamma$ 를 형성한다. 원형부정사 보문과 달리, to-부정사 보문에서는 이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v\*P 국면이 발생한다. 이어서 (29d)에서는 v\*에서 V로의 자질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표찰이 결정된다.

$\alpha$ 는 핵과 최대 투사의 병합이므로 VP로 표찰되고, V는 v\*로부터  $\phi$ -자질을 상속받아 목적어 DP와 일치한다. 그 결과  $\beta$ 의 표찰은 < $\phi$ ,  $\phi$ >로 결정된다.  $\gamma$ 에서는 v\*가 유일한 핵이 되어, v\*P로 표찰된다. (28e)에서는 v\*와 V의 내부 쌍병합으로 <V, v\*> 구조가 형성된다. 이때 v\*는 비활성화되어 통사적으로 비가시적인 요소가 되며, 국면 핵 지위를 상실한다. 그 결과 V가 새로운 국면 핵으로 기능하고, 그 보충어 영역이 전이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서 V의 비해석성  $\phi$ -자질은 탐색자로 작용하여, 성분통어 영역 내 목적어 DP와 일치 관계를 형성하며 자질 점검이 완료된다.

v\*P 국면에서 자질 상속, 표찰, 전이가 완료된 뒤에도 도출은 계속 진행된다. 이후 과정은 다음 (30)과 같다. (30a)에서 보문 주어 me가 v\*P의 지정어 위치에 외부 조병합하여  $\delta$ 를 형성한다. (30b)에서는 T가 병합되어  $\epsilon$ 가 형성되고, (30c)에서 보문 주어가 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eta$ 를 형성한다. 이후 (30d)에서 상위 동사 help가 병합되고, (30e)에서 보문 주어는 다시 상위 V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이로써 보문 주어는 하위 절에서 상위 절로 연속적으로 이동한다.

- (30) a. [ $\delta$  me, [ $\gamma$  <V, v\*>, ... ]]  
 b. [ $\epsilon$  T, [ $\delta$  me, [ $\gamma$  <V, v\*>, ... ]]]  
 c. [ $\eta$  me, [ $\epsilon$  T, [ $\delta$  me, [ $\gamma$  <V, v\*>, ... ]]]]  
 d. [ $\theta$  V, [ $\eta$  me, [ $\epsilon$  T, [ $\delta$  me, [ $\gamma$  <V, v\*>, ... ]]]]]  
 e. [ $\kappa$  me, [ $\theta$  V, [ $\eta$  me, [ $\epsilon$  T, [ $\delta$  me, [ $\gamma$  <V, v\*>, ... ]]]]]]  
 f. [ $\lambda$  v\*<sub>[u $\phi$ ], [ $\kappa$  me, [ $\theta$  V, [ $\eta$  me, [ $\epsilon$  T, [ $\delta$  me, [ $\gamma$  <V, v\*>, ... ]]]]]]]]  
 g. [ $\lambda$  v\*, [ $\kappa$  me, [ $\theta$  V<sub>[u $\phi$ ], [ $\eta$  me, [ $\epsilon$  T, [ $\delta$  me, [ $\gamma$  <V, v\*>, ... ]]]]]]]]  
 h. [ $\lambda$  <V, v\*>, [ $\kappa$  me, [ $\theta$  ~~V~~, [ $\eta$  me, [ $\epsilon$  T, [ $\delta$  me, [ $\gamma$  <V, v\*>, ... ]]]]]]]]</sub></sub>

(30f)-(30h)에서는 상위 v\*의 병합, 자질 상속, 내부 쌍병합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v\*P 국면이 형성되며, 자질 상속과 표찰 작업이 다시 적용된다.

표찰 관점에서 살펴보면,  $\delta$ 는 대칭 구조를 이루지만, T가  $\phi$ -자질을 갖지 않는 결합적 T이므로, 보문 주어는 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통사체  $\eta$  역시 {{DP}, {TP}}와 같은 유사한 구조를 이루며, 이때 D와 T 사이에는 공유되는  $\phi$ -자질이 존재하지 않아 < $\phi$ ,  $\phi$ >에 기반한 표찰 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문 주어는 모문 동사 V의 지정어 위치로 추가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통사체  $\eta$ 는 {{t}, {XP}}와 같은 비대칭 구조로 재구성되며, 이 통사체의 표찰은

TP로 결정된다. 반면  $\kappa$ 에서는 상위 동사 help가 비해석성  $\phi$ -자질을 가지므로, 보문 주어와의 자질 공유가 가능하고, 그 결과  $\kappa$ 의 표찰은  $\langle \phi, \phi \rangle$ 로 결정된다.

이처럼 to-부정사 보문에서는 보문 주어가 하위  $v^*$ 의 지정어, 하위 T의 지정어, 상위 V의 지정어 위치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순환적 이동을 보인다. 이는 원형부정사 보문과의 핵심적인 차이이다.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복합핵  $\langle v^*, T_{def} \rangle$ 에 의해 구조가  $v^*P$  수준에서 고정되어 표찰이 조기에 완료되므로, 보문 주어의 이동이 차단된다. 반면 to-부정사 보문에서는 TP가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국면 전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보문 주어의 이동이 허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예문(31)의 수동화 현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31b)가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이유는, 보문 주어 Sarah가 상위 구조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to-부정사 보문은 독립적인 TP를 형성하며, 그 내부에서의 이동이 상위 절과 연결되어 수동문 생성이 가능하다.

- (31) a. Michael helped Sarah to eat the sandwich. (=2b)  
b. Sarah was helped to eat the sandwich.

결과적으로, help-구문의 두 부정사 보문은 병합 방식, 절 구조의 크기, 시제 해석, 보문 주어의 이동 가능성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 3.2 이론적 장점

본 절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장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첫째, 본 분석은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적·통사적 현상을 구조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둘째, 기존의 ECM 분석이나 통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선택이 아닌 병합 방식의 차이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이러한 분석은 help-구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정사 보문을 포함한 통사 체계 전반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본 절에서 제시되는 여러 현상은 순수한 통사적 제약만으로 환원되기보다는, 의미적·화용적 요인과 사용 기반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시제 해석, 부정, 부사 및 부가어 범위와 관련된 판단은 화자 직관과 맥락에 따라 일정한 변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절대적인 문법성 대비가 아닌 수용성 및 해석 경향의 차이로 기술한다.

특히 본 논문의 핵심 장점은 help-구문에서 관찰되는 여러 통사적 차이를 병합 방식의 차이라는 단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동화 가능성, 시제 해석, 상 표현, 부정 및 부사의 분포, 그리고 부가어 해석 범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이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된다. 먼저, 수동화 가능성을 예문(32)-(33)을 통해 다시 살펴보자.

- (32) a. Michael helped Sarah eat the sandwich. (=2a)  
b. \*Sarah was helped eat the sandwich. (=27b)  
(33) a. Michael helped Sarah to eat the sandwich. (=2b)  
b. Sarah was helped to eat the sandwich. (=31b)

(32b)는 완전히 비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33b)는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이러한 수용성의 차이는 범주적으로 절대적인 대립이라기보다는 정도성(gradience)을

보이지만, 두 보문이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가지지 않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경험적 근거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문의 구조적 독립성 차이로 설명한다.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T가 결합적 요소로, v\*와의 외부 쌍병합을 통해 복합핵 <v\*, T<sub>def</sub>>을 형성한다. 이 구조에서는 보문이 독립적인 절 단위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보문 주어의 이동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수동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to-부정사 보문에서는 T가 독립적으로 병합되어 TP를 형성하므로, 보문은 완전한 절 단위로 존재하며, 수동화 과정에서 보문 주어가 상위 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시제 해석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다음 예문(34)를 살펴보자. (34a)에서 청소 사건은 상위 절 사건과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시적으로 발생하거나 하나의 복합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는 원형부정사 보문에서 T<sub>def</sub>가 독립적인 시제 해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T<sub>def</sub>는 상위 절 T와의 일치 관계를 통해 시제 값을 부여받으며, 그 결과 보문 사건은 상위 절 시제에 종속된다.

- (34) a. John helped Mary clean the room.  
b. John helped Mary to clean the room.

반면 (34b)의 to-부정사 보문에서는 청소 사건이 도움 행위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청소하도록 도왔다”와 같은 지향적(prospective) 해석이 보다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to-부정사 보문의 T가 독립적인 기능 핵으로 병합되어 TP를 형성하고, 보문 절이 자체적인 시간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시간 부사와 결합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예문(35)를 살펴보자. (35a)에서는 청소 사건이 상위 절의 과거 시제에 종속되는 반면, (35b)에서는 미래 지향적 해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허용된다. 이는 원형부정사 보문이 상위 시제에 의존하는 구조인 반면, to-부정사 보문은 독립적인 시제 해석을 허용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 (35) a. John helped Mary clean the room yesterday.  
b. John helped Mary to clean the room tomorrow.

두 구조의 차이는 상 표현의 실현 가능성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음 예문(36)-(37)를 살펴보자. (36)-(37)에서 보이듯이,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완료형이나 진행형과 같은 상적 요소의 실현이 전면적으로 배제되기보다는 수용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to-부정사 보문에서는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이는 두 보문의 기능 구조의 크기 차이를 반영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 (36) a. ?John helped Mary have finished the work.  
b. John helped Mary to have finished the work.  
(37) a. ?John helped Mary be solving the problem.  
b. John helped Mary to be solving the problem.

to-부정사 보문은 독립적인 TP를 형성하므로, 그 내부에 AspP와 같은 상적 투사가 도입될 수 있는 구조적 여유를 가진다. 따라서 완료형이나 진행형과 같은 상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반면, 원형부정사 보문은 T<sub>def</sub>가 v\*와 결합한 축소된 구조로, 독립적인 TP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상적 범주를 투사할 구조적 기반이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완료형과 진행형과 같은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두 부정사 보문의 차이는 단순한 형태적 변이가 아니라, 기능 구조의 크기 차이에 기인한다. 즉, to-부정사 보문에서 나타나는 상적 확장은 TP 구조의 존재를 반영하는 반면, 원형부정사 보문에서의 제약은 해당 구조가 보다 축소된 구조임을 시사한다.

부정 표현의 분포에서도 두 구조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 예문(38)을 살펴보자. 두 문장 모두 문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38b)가 (38a)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38a)는 완전한 비문이라기 보다는 수용성이 낮은 문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두 보문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 (38) a. ?John helped Mary not fail the test.  
b. John helped Mary not to fail the test.

to-부정사 보문에서는 독립적인 TP가 형성됨으로써 부정 요소 not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해석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제공된다. 반면 원형부정사 보문은 이러한 기능적 층위가 결여된 축소된 구조를 가지므로, 부정 표현의 분포와 해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정 표현의 허용성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문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의존함을 시사한다.

부사의 분포와 해석 범위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예문(39)을 살펴보자. (39b)의 to-부정사 구조에서는 부사 carefully가 보문 TP 내부에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solve the problem 사건만을 수식하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 (39) a. ?John helped Mary carefully solve the problem.  
b. John helped Mary to carefully solve the problem.

반면 (39a)의 원형부정사 구조에서는 부사의 분포와 해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carefully는 문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그 해석이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 즉, carefully가 보문 동사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상위 동사와 결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모호성은 원형부정사 보문이 독립적인 TP를 형성하지 못하는 축소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문 내부의 기능적 층위가 충분히 확장되지 않아, 부사가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통사적 위치가 제한된다. 그 결과 부사의 범위 해석 역시 불안정해지며, 문장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가어의 분포와 해석 범위에서도 두 구조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 예문(40)을 살펴보자. (40b)의 to-부정사 보문은 독립적인 TP를 형성하므로, 시간 부가어와 같은 요소가 보문 내부에 안정적으로 결합한다. 이때 on time은 자연스럽게 finish the work 사건만을 수식하며, 해석 범위도 보문 내부로 명확히 한정된다. 즉, 시간 부가어는 보문 TP가 제공하는 구조적 경계 내에서 해석되며, 상위 절의 사건과 분리된 독립적인 사건 시간을 형성한다.

- (40) a. John helped Mary finish the work on time.  
b. John helped Mary to finish the work on time.

반면 (40a)의 원형부정사 보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on time이 finish

the work를 수식하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40b)에 비해 불분명하며, 상위 절 사건과의 결합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 이는 원형부정사 보문이 독립적인 절 경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축소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문은 상위 동사와 하나의 단일한 사건 복합체처럼 해석되는 경향을 보이며, 시간 부가어 역시 명확한 구조적 경계를 갖지 못한 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적 사실은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두 부정사 보문이 단순한 형태적 변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병합 방식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 차이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는 이를 주로 의미적·화용적·역사적 자료에 의존하거나, ECM 또는 통제 구조로 설명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접근은 각각 한계를 가진다. ECM 분석은 보문 주어와 상위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서 생성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to-부정사 보문에서 나타나는 TP 구조와 보문의 통사적 독립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통제 분석 역시 의미적 해석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수동화 가능성이나 부정 및 부사의 분포와 같은 통사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은 이러한 차이를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본다. 즉, help가 서로 다른 유형의 보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 방식의 차이가 서로 다른 통사 구조를 형성하고, 그 결과 다양한 의미적·통사적 차이가 도출된다. 특히 외부 쌍병합과 외부 조병합의 구분은 절 구조의 크기와 기능 범주의 분포를 일관되게 결정하며, 이는 시제 해석, 상 표현, 보문 주어의 이동 가능성, 통사적 독립성 등의 차이로 이어진다.

나아가 본 논문의 분석은 help-구문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통사 현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즉, 부정사 보문의 유형 차이는 단순히 기능 범주의 결합성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병합 단계에서의 구조 형성 방식, 특히 외부 쌍병합과 외부 조병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접근은 사역동사 구문을 포함한 다양한 비정형 절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본 논문은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적·통사적 차이를 병합 방식이라는 단일한 구조 원리로 설명하며, 기존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사 체계 전반으로 일반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분석은 병합과 표찰을 중심으로 하는 통사 이론의 설명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4. 결론

본 논문은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원형부정사 보문과 to-부정사 보문이 단순한 표면적 변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병합 방식에 의해 도출되는 상이한 통사 구조임을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두 보문의 차이를 역사적 자료에 의존하거나, 의미적·화용적 요인이나 ECM 구문 및 통제 구문과 같은 구조를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수동화 가능성, 시제 해석, 상 표현, 부정 및 부사 분포, 부가어의 해석 범위와 같은 다양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두 부정사 보문의 차이를 외부 쌍병합과 외부 조병합이라는 병합 방식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원형부정사 보문은  $v^*$ 와 결합적  $T_{def}$ 가 외부 쌍병합을 통해 복합핵  $\langle v^*, T_{def} \rangle$ 을 형성함으로써 절 구조가  $v^*P$  수준에 머무는 축소된 구조를 가진다. 반면 to-부정사 보문은  $T$ 가

독립적으로 병합되어 TP를 형성하는 확장된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절 구조의 크기뿐 아니라 국면 형성, 자질 상속, 보문 주어의 이동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도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형부정사 보문은 TP를 형성하지 못해 보문 주어의 이동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며, 그 결과 수동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to-부정사 보문은 TP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보문 주어의 순환적 이동 경로가 확보되어 수동화가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둘째, 시제 해석 측면에서 원형부정사 보문에서 보문 T<sub>def</sub>는 상위 절 T와의 일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제 해석이 상위 절에 종속되며, 두 사건은 동시적이거나 포괄적인 관계로 해석된다. 반면 to-부정사 보문은 독립적인 TP를 형성함으로써 자체적인 시간 구조를 가지며, 지향적이거나 시간적으로 분리된 해석을 허용한다. 셋째, 상 표현, 부정, 부사 및 부가어의 분포 역시 두 구조 간의 기능적 층위 차이를 반영하며, 이는 TP의 존재 여부에 의해 일관되게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는 두 부정사 보문의 차이가 단순한 형태적 선택이나 어휘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본 논문은 부정사 보문의 차이를 기능 범주의 결합성 차원이 아니라 병합 방식의 차이로 환원함으로써, 다양한 의미적·통사적 현상을 단일한 원리로 통합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은 help-구문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통사 현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즉, 부정사 보문의 유형 차이는 외부 쌍병합과 외부 조병합이라는 병합 방식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역동사 구문을 포함한 다양한 비정형절 구문에도 적용이 가능한 일반화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정사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이 다른 동사 유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 간 비교를 통해 부정사 보문 구조의 변이와 보편적 원리를 탐색하는 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병합 방식의 차이가 의미 해석과 형태적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요컨대, 본 논문은 help-구문에서 나타나는 부정사 보문의 구조적 차이를 자유 병합과 포착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병합 방식이 통사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원리임을 밝히고, 절 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 참고 문헌

- 백다운(Baek, D-Y). 2023. 영어 help의 부정사 보문 구조(A structural analysis of infinitival complements for the English verb help). <<언어과학연구>>(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103, 105-125.
- 백다운·장경철(Baek, D-Y. and K-C. Chang). 2025. 영어 지각동사의 부정사 보문에 대한 표찰 알고리즘 기반 분석. <<언어과학>>(Journal of Language Sciences) 32(4), 69-92.
- Aarts, B. 2024.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New York: Longman.
- Blümel, A. 2024. A case study in underspecification of UG: External Pair-Merge of v and T. *Syntax* 27(1), 1-25.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104-1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 Chomsky, N. 2015.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In E. Di Domenico, C. Hamann and S. Matteini, eds., *Structures, Strategies and Beyond: Studies in Honour of Adriana Belletti*, 1-16.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homsky, N. 2021. Minimalism: Where are we now, and where can we hope to go. *Gengo Kenkyu: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Japan* 160, 1-41.
- Close, R. 1975. *A Reference Grammar for Students of English*. London: Longman.
- Dixon, R. 2005. *A Semantic Approach to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ffley, J. 1992. *The English Infinitive*. London: Longman.
- Epstein, S., H. Kitahara and D. Seely. 2015. *Phase Cancellation by External Pair-Merge*. Paper presented at the 150th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Japan.
- Hah, E. C. 2013. A corpus-based study on English help-constructions. *The Mira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8(2), 291-308.
- Haiman, J.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4), 781-819.
- Huddleston, R. and G.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K. H. 2002. The syntax of the infinitival perception verb complement in English.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4(2), 705-730.
- Hwang, K. H. 2016. A labeling algorithm approach to infinitive complements in English.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8(1), 245-260.
- Jespersen, O. 1965.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Mair, C. 1995. Changing patterns of complementation, and concomitant grammaticalisation, of the verb help in present-day British English. In B. Aarts and C. F. Meyer, eds., *The Verb in Contemporary English: Theory and Description*, 258-27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Enery, A. and Z. Xiao. 2005. Help or help to: What do corpora have to say? *English Studies* 86(2), 161-187.
- Mizuguchi, M. 2016. De-activation of  $\Phi$  through Pair-Merge. *English Linguistics* 33(1), 108-118.
- Nation, P. 2013. *What Should Every EFL Teacher Know?* Seoul: Compass Publishing.
- Palmer, F. 1987.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dford, A. 2009. *Analysing English Sentences: A Minimalist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hdenburg, G. 2003. *Determinants of Grammatical Variation in English*. Berlin: Mouton de Gruyter.
- Rudanko, J. 2003. More on horror aequi: Evidence from large corpora. In *Proceedings of the Corpus Linguistics 2003 Conference*, 662-668.
- Sohng, H-K. and S-C. Moon. 2007. Infinitives in the history of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3), 285-308.
- Wang, M., G. Jiang and Y. Cheng. 2024. A corpus-based multifactorial study of help/help to alternation in learners' language: From the perspective of probabilistic grammar. *SAGE Open* 14(4), 21582440241293535.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All